▶영화제, '날' 마다 이 영화

황금연휴, 무작정 전주에서 즐기자

'인류의 상승'

'비구니'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전주국제영화제는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열여덟 살, 청신한 얼굴이다.
영화제를 바라다보면 내가 전주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가는 영화제 날짜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속에 있다.'
- 시인 겸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수필 '5월' 패러디 -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전주국제영화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화계의 피톤치드 같은 독립·대안영화들이 줄지어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징검다리 황금연휴, 무작정 전주로 향하는 건 어떨런지.

오늘부터 '인류의 상승' · '비구니'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등 선보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인류의 상승〉

〈인류의 상승〉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구직 의사가 없거나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큰 뜻을 품지 않고 인터넷 세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들, 엑스·알프·아기의 에피소드.

영화는 각기 다른 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묘하게 연결 된다. 글로벌 자본주의 아래에서 신음하는 노동의 조건, 불통의 시스템, 관음의 테크놀로지, 존재의 불안 등을 소재로 한 영화는 젊은 세대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3일 '석가탄신일' 〈비구니〉

1984년 불교계의 요구로 제작중지 됐던 임권택 감독 〈비구니〉의 부분복원판.

〈비구니〉는 송길한 작가의 각본 가운데 5분의 1 정도 장면들을 촬영했을 무렵, 불교계가 비구니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대규모 시위와 소송까지 벌이는 바람에 제작을 중단해야 했다. 작품은 출가한 여인의 번뇌, 구원을 향한 일생의 여정을 담았다.

▲5일 '어린이날'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영역을 개척한 미셸 오슬로의 신작은 동화와 시적 이미지의 환상적인 결합을 보여준다.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는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작은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두 명의 아이, 한 소년과 소녀가 극장에서 낡은 영사기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기이한 상상력에서 네 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전설의 괴물들, 황금 열매가 열리는 나무, 마법사와 해적, 왕과 왕비, 고양이, 쥐, 그리고 말. 환상 세계의 캐릭터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스테인드글라스 창문과 같이 휘황한 장식과 정교하게 조각된 실루엣 그림이 스크린을 수놓는다.

'버블 패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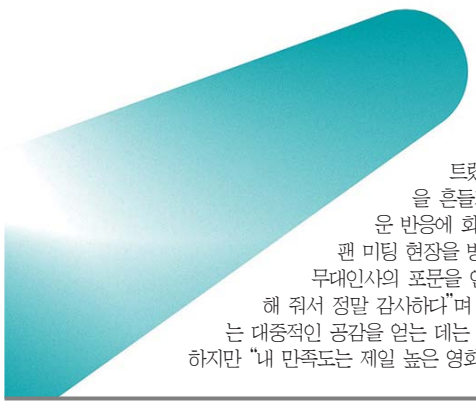
▲8일 '어버이날' 〈버블 패밀리〉

〈버블 패밀리〉는 1980년대 도시 개발의 붐을 타고 부동산 투자에 인생을 걸었던 감독의 부모님의 일생을 다루면서 한때 벼락부자가 되었으나 과다 투자로 인해 부도를 맞으면서 IMF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진 한국형 중산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적 다큐멘터리.

거품처럼 꺼져버린 부자에의 열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부동산 투자에 매달린 감독의 부모는 15년째 월세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은 대책 없는 그의 부모님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다. 살고 있던 월세 집에서 나가야할 상황에 처해서도 기약 없이 부동산 투자에 매달리는 그의 부모를 보며 감독은 개발신화에 매달렸던 한국사회의 탐욕을 드러내 보인다. /정해은 기자

영화 '아수라' 출연배우 무대인사

정우성 "배우로서의 자세와 시간 되돌려줬다"



배우 정우성·주지훈·정만식, 김성수 감독이 지난 4월 29일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인 〈아수라〉 무대인사에 참석해 토요일 밤의 열기를 달궜다.

이들의 등장에 관람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트렸고, 감독과 배우들은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관객의 뜨거운 반응에 화답했다. 10여 분 간 진행된 무대인사는 팬 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다.

무대인사의 포문을 연 김성수 감독은 "철지난 영화를 초청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지만 영화는 대중적인 공감을 얻는 데는 일정 부분 실패한 것 같다" 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만족도는 제일 높은 영화였다"고 덧붙였다.

〈아수라〉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악인들의 전쟁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9월 개봉 당시 반역적인 문제작으로 평단을 사로잡았다. 정우성을 비롯해 황정민, 곽도원 등 베테랑 배우들이 완벽한 연기 합을 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열성적으로 〈아수라〉를 지지하는 관객들을 지칭하는 '아수리언'이 나타나는가 하면, 영화 속 가상 도시인 '안남시'의 시민을 자처하는 팬덤이 만들어지며 뜨거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생존형 비리형사 한도경 역을 정우성은 "전주시민과 '아수리언'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했다. 그는 "아수라는 영화배우로서의 자세와 시간을 되돌려준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주지훈은 "개인적으로 좋은 형들과 김성수 감독님을 만났다. 배우가 되는 긴 싸움에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아수라는 인생과 배우로의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1일 10:30 메가박스 전주(객사) 6관(관객과의 대화), 3일 11:00 CGV전주고사 6관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 : 전주 라운지

나와, 영화보자

Jeonju Int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
Jeonju Dome Screening

영화 상영 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전주 돔 상영' +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

4. 28 Fri 19:00~
<파리의 밤이 열리면>
+ 공연: 페퍼톤스/ 솔루션스

4. 29 Sat 19:00
<아수라>

4. 30 Sun 16:00~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19:00~
<내 사랑>

5. 1 Mon 19:00~
<리베라시옹 데이>
+ 공연: 라이바흐

5. 2 Tue 19:00~
<마스터>

5. 3 Wed 19:00~
<로스트 인 파리>
+ 공연: 멜로망스/ 치즈

5. 4 Tur 19:00~
<리틀 하버>
+ 스페셜 공연: 요조 "나.아.당.궁"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5. 5 Fri 14:00~
<패트와 매트:
뚝딱뚝딱 대소동>(무료상영)
19:00~
<정글북>
+ 무료공연: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 오왠

※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8th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 특별전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가 마련한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 특별전 전시가 전주영화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 송길한은 1940년생으로 전주 출신이다. 1970년 '흑조'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나리오 부문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다양한 장르의 시나리오를 쓰다가 1970년대 말부터 임권택 감독과 짝을 이뤄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짝코〉(1980), 〈만다라〉(1981), 〈우상의 눈물〉(1981), 〈비구니〉(1984), 〈길소뜸〉(1985), 〈씨받이〉(1986), 〈명자 아끼꼬 쏘냐〉(1992) 등의 각본을 집필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스페셜 포커스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 전주 돔 상영 섹션 '리베라시옹 데이'

음악·영화로 '표현의 자유' 꿈꾸다

유럽 출신 락 밴드 최초 평양공연 성사 '라이바흐'의 이야기 다뤄

유럽 출신 락 밴드로는 최초로 평양공연을 성사시킨 '라이바흐'의 공연과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전주 돔 상영' 섹션으로 관객을 찾는다.

영화 〈리베라시옹 데이〉는 지난 2015년 8월에 있었던 락 밴드 라이바흐의 평양 공연실황과 그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슬로베니아의 모르텐 트라비크 감독이 연출했다.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호평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다양한 장소에서 자유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온 라이바흐의 메시지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슬로건으로 내건 '영화 표현의 해방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특히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음악을 추구하는 점, 관객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메시지를 고르길 권장하는 라이바흐 음악의 특징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대안과 독립의 영화제를 표방하며 다양한 영화의 언어를 수용해 온 점과 맞닿아있다.

이미 많은 국내 매체의 관심을 받으며 일찍 도착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는 라이바흐는 동유럽에서 단단한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팀이다.

라이바흐와 함께 작업한 〈리베라시옹 데이〉측은 "라이바흐가 권력자와 유사한 복장을 하고 우스꽝스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그들을 희화화하고 절대 권력을 나눠 갖자는 의도"라며, "라이바흐는 그들 스스로 외에는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측은 라이바흐에 대해 "어떠한 틀이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만의 표현을 고수하는 점이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인 '영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리베라시옹 데이〉는 가장 억압된 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밴드가 공연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영화는 1일 저녁 7시 전주시 고사동 전주 라운지 내에 위치한 '전주 돔'에서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리베라시옹 데이〉의 실제 주인공인 '라이바흐' 밴드의 공연이 이어진다. /정해은 기자